

August Konkel 박사, 역대기, 11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 2024 거스 콘켈(Gus Konkel)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아우구스트 쿤켈 박사(Dr. August Kunkel)입니다. 세션 11,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왕국에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연대기 기자의 초점은 다윗이 그의 제국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지도자들에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연대기 기자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대표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일련의 장 전체를 다루는데, 이는 다시 우리에게 전혀 흥미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장의 세부 사항을 조사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글썄요, 연대기 작성자는 여기서 23장부터 26장까지 다섯 장을 사용할 것입니다. 글썄요, 다섯 장은 아닙니다. 23장부터 26장은 성전의 기능, 즉 성전 주변의 예배를 수행하는 자들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실제로 대표하는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다음 27장에서 그는 제국의 행정에 관해 좀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 물론 제국에는 행정이 필요하고 그 부분도 빼놓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첫 번째 관심사는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 하는 모든 일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 하는 일 중 하나는 단순히 성전 부지를 선택하고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맡은 임무를 22장에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도자들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지도자들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연대기 기자는 레위인의 족보와 그들의 정당성 측면에서 그들이 구조화된 방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후손을

레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이 성전의 지도자가 될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조직과 다윗이 이러한 레위인의 구분을 각기 다른 기능에 두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레위인 전체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그것들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레위 사람들 중 특정한 부분에 속하는 제사장들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음악가들은 성전의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문지기는 성전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국 시민권을 관리하는 레위 사람들의 관리들과 재판관들에 대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David가 조직 전체를 준비하는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여기로 이동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앙화된 성전이 생기면 레위인의 의무가 바뀌는 것을 몇 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모든 예배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된 레위인 봉사의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숫자는 레위인의 봉사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성전 봉사에서 이것은 모든 일상의 의식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촛불을 켜고 빵을 유지하는 것과 모든 일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진행되는 일.

이것이 주요 사업이고 24,000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레위인은 재판관과 관리입니다. 경찰관은 일종의 기록 보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다른 고대 기록에 언급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 지도자나 사법 지도자의 보조자이기도 한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6,000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안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4,0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000개가 더 있습니다. 그들은 축제와 순례와 찬양의 시간에 성전 음악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 일부는 시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기 기자가 레위기 23장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레위의 세 아들, 즉 게르솜, 고핫, 므라리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4가구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24라는 숫자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는 실제로 레위인의 의무에서 이 가족들의 임무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24가족이 하는 일은 일주일 중 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각 가족은 유대 달력 연도가 작동하고 운영되는 방식으로 전체 달력 연도 중 2주를 섬깁니다. 1년은 12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일곱 번째 달에 13번째 달을 넣었지만 달력상의 1년은 항상 12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족속은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언급했듯이 우리는 때때로 매우 부정적인 방식으로 가부장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권리와 권력에 관한 것입니다. 가부장주의는 그 정의에 따르면 누가 재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정 가족 대표에 따라 누가 가족을 대표하는지 이해하는 조직 시스템일 뿐입니다. 이 경우에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권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성이 없다고 해서 그 가족이 탈락하여 더 이상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부장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계속되는 많은 활동가들의 글, 특히 요즘 성경과 관련된 활동가의 글에서 그러한 메시지를 별로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들이 없는 레위 사람 말리의 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남편으로 대표되었습니다. 역대기가 매우 신중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 변화는 레위인과 제사장 사이의 구별이 훨씬 덜 뚜렷한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레위인들은 아보다(avodah)라고 불리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것은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데에 일어나는 모든 육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히브리어로 그들의 봉사 또는 그들의 아보다(avodah), 그들의 일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물론 일의 정의는 항상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레위인들과 관련하여 변화됩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제사장들이 성막 자체를 돌보는 실제 업무에서 매우 뛰어났던 반면, 성막은 훨씬 작고 덜 정교하며 그런 의미에서 훨씬 적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성막 자체를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의미에서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동해야 했고, 관리를 받아야 했고, 캔버스와 그 밖의 모든 것을 수리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기 작가는 그들의 아보다를 레위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성직자들과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진설병 상 위에서 매일 바뀌어야 했던 빵을 정기적으로 굽는 일, 기름을 만드는 일, 그들이 부르는 대로 등대와 메노라에 쓸 기름을 모으는 일과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고 향, 불, 기구 및 기타 모든 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다른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아보다(avodah)로 성전 봉사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또한 신성한 물건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창고를 관리했습니다. 결국, 오래된 성막은 보호하고 보관해야 하는 다양한 다른 유물들과 함께 성전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레위인들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연대기는 구분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는 1부터 24까지 숫자를 매깁니다. 레위인의 24계열이라고 불리는 것의 기원에 관해 때때로 꽤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성서에 도달할 때까지 매우 독특한 레위인의 반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모든 가족은 24개의 다른 반열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 주문은 일주일 단위로 제공됩니다. 한 번의 주문으로 12개월로 구성된 연도 중 2주 동안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것은 신약 시대에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언제 시작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역대기는 우리가 그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역대기의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레위인의 24반열과 순번의 순서가 생긴 때를 심판할 수 있는 어떤 외적인 수단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때가 역대기가 기록된 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연대기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그 자체로는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순환적인 주장입니다. 24개 주문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글썄, 역대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시대에 성전에 갔을 때 명령의 관행이 연대기 기자 시대 초기에 시작되었다는 징후가 많이 있습니다.

역대기 자체에 있는 정보, 즉 족보와 그 역사에 따라 연대기 작성자의 시간을 취하면 5세기 말경 페르시아 제국에 속하게 됩니다. , 아마도 300년대 4세기 초, 이때는 이러한 것들이 이미 확립된 때입니다. 이제 연대기 작가의 사물 묘사에서 그 기원은 실제로 그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이 모든 악사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임 사람들을 성전 주위에 조직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독립적으로 알 수 있는 역사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다윗의 생각이었다고 말한 역대기 기자가 틀렸다고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 반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대기 작가가 가지고 있던 자료의 사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음, 여기에 우리가 그의 출처를 매우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의 출신 레위인은 23장 23절 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1절까지에서 그는 정확히 동일한 목록을 취하여 두 세대씩 확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레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반복이지만 50년이 지난 지금은 4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연대기 작성자는 이런 의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매우 역사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마치고 국가 관료들의 조직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제국의 행정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연대기 작가는 이것을 빼놓지 않고 제국의 모든 다른 지역의 군 사령관, 즉 부족 장교, 행정관, 그리고 왕실 의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왕국이 제국의 통치 측면에서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대기 작성자가 그 모든 것을 한 장에 넣을 수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던 것, 즉 성전의 역할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아우구스트 쿤켈 박사(Dr. August Kunkel)입니다. 세션 11,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왕국에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